

겨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9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1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시각장애인의 보조공학 생활 / 김상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팀 교사)

### 장애인계 뉴스

1. 86번째 맞은 점자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열려
2. 인천선관위,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제공
3. 용진페스원 장학프로그램 통해 시각장애인 10명 공무원합격의 꿈 이뤄내
4. 충남경찰청, 장애인 맞춤형 치안정책 펼쳐
5. 오비맥주, 시각장애인과 북한산 둘레길 동행
6. 미술로 마음 다듬으며 '힘'내세요!
7.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시급

기획: 안마사의 학력 제한, 차별인가 필수인가

독자마당: 애널리스트의 하루-2012년 10월의 어느 날 / 신순규(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미국 투자금융회사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근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0월 16일~10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7): '핸드프린팅'과 '타임캡슐'을 순화한 말은?

## 포커스

### 시각장애인의 보조공학 생활

#### 김상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팀 교사)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목이 말라 가던 길을 멈추고 물통을 꺼내어 물을 마시려고 하였다. 그 순간 어느 집 똥개인지 개 한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그 시각장애인의 바지에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오줌을 갈기는 똥개를 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과자를 꺼내어 똥개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장면을 당대의 최고 성인이라 불리던 타고르선생님이 목격하게 되었다.

타고르선생 : 여보시오, 양반~ 당신은 진정한 성인이시오, 난 수행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 같으면 그 개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요, 근데 당신은 어찌 때려서 쫓기는커녕, 과자를 준단 말이요?

시각장애인 : 선생님, 전 성인이 아닙니다.

타고르선생 : 대단하시구려, 그런 와중에서 겸양까지~ 진정 성인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 도다!

시각장애인 : 결코 그런 것이 아니오니,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타고르선생 : 그럼 무슨 연유로 그 개를 그냥 둔단 말이요?

시각장애인 : 과자를 꺼내어 개의 머리 위치를 파악해, 정확히 조준해서 때리려고요...

위 우화는 지난 2008년에 필자가 저술한 “한판 붙자! 나도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전문가다”의 서문에 보조공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한 우화이다. 사실이 이야기를 처음 지인에게서 들었을 때 한번 웃고 넘길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그 내용을 곱씹어볼수록 오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느꼈다.

우화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껌씹한 개의 머리를 찾아 강한 힘으로 때리기 위해 과자라는 보조도구를 활용하였다. 보이지 않는 시력을 보완하여 목표물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찌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어떤 사람은 똥개를 잡아서 던져버리면 더 홀가분하지 않을 까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개를 잡는 순간 개는 위협을 느껴 도망을 간다던지 시각장애인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탁월한 방법은 아닌 듯싶다.

사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시력의 손상이나 시야의 결손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데,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동, 교육, 직업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의한 문제 발생에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정안인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위의 우화에서도 나왔듯 시력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할 것이며, 그런 방법들을 오랜 옛날부터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보조공학이라 할 수 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보조공학은 단순히 화면읽기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의 기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보조공학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모든 기기와 서비스를 포괄한다. 즉 보조공학은 시각장애

라는 기능적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이는 기기일 수도 있고 그를 감싸는 서비스 전달체계일 수도 있으며, 고도의 기술력을 집약한 기기일 수도 있고 단순한 도구일 수도 있다.

최근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보조공학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출시되는 스마트 기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사무기와 소프트웨어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날씨를 확인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야구를 본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한정되어있고, 장애인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앱은 턱없이 적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보조공학기기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점자정보단말기는 학습, 여가, 직업생활 등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지만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 가치가 반감될 수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화면읽기프로그램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가 나온 후에 업데이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신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스마트기구나 보조공학 제품이 반드시 시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간단한 도구라도 적절한 상황에 맞는 연결과 교육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면 어떤 기기보다 훌륭한 보조공학이 될 수 있다.

가령 위 우화의 시점이 현대사회라면 개의 머리를 찾는데 과자만큼 적절한 것이 있을까? 주인공에게 점자정보단말기가 있었다면 개의 머리 찾는 도구보다는 머리를 타격하는 도구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럼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나마 카메라로 사진 정도를 찍어 개의 몽타주라도 만들어 후일에 복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도의 기술과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기기보다 단순한 먹을거리인 과자가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는 최고의 해결책을 알려준다.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과 기능을 가진 보조공학 장비를 무시하거나 평가 절하 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고가의 장비만이 보조공학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보급하는 대표적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진행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이다.

이름도 유사한 이 사업들은 주로 보급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장애 영역별로 정해진 제품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여 개인이 반드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적인 예로 저시력인이 대형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자꾸 마우스 포인터를 잃어버린다. 이런 경우 터치 모니터를 이용해서 손가락 위치에 따라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은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보조공학 보급 사업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터치 모니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 자부담을 통해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

향후 보조공학 보급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단순 지원 형태를 탈피하여 개인의 장애정도나 상황에 맞는 연결과 교육,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보조공학 개념을 접목 시켜 실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계 뉴스

1. 86번째 맞은 점자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열려

제86주년 점자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11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한명숙 의원,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성대 송암기념사업회장 등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숙 의원은 축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인 점자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초대되어 기쁘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이은심 팀장이 점자의 보급·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포상을 받았으며, 점자수기 공모대회에서 입상한 김정용, 박정인, 이윤희 씨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이경림 전임대우강사가 발제를 맡고, 서울맹학교 이인학 교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오윤진 교수,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이은심 팀장 등이 ‘표 점역을 중심으로 한 점자도서의 시각자료 제작 표준’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이경림 강사는 “최근 교과서 편집체계가 시각화되는 가운데 교과서에 표·그래프·지도 등 다양한 시각자료가 실리고 있지만 점을 기반으로 하는 점자는 이러한 시각자료를 나타내는 데 제한이 많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표는 모든 종류의 연구·자료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를 이해하는 것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표 점역에 있어 효율적이고 가능한 형식을 선정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형태로 점역할 수 있는 방안과 적용시기 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학 교사는 “표 점역은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업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표 점역의 예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점자연구를 하는 공식적 기구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을 결성해 점자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진 교수는 “원문에 충실하면서 시각장애 학생의 이해력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표 점역 지침은 각각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표준화를 따르되 원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은심 팀장은 “시각장애 학교에서 정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도표나 그림을 잘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지도서의 도표제작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와 더불어 진행된 ‘점자 페스티벌’에서는 점자 낭독경연대회가 열렸으며, 10여명의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이 시, 수필, 성경 등 자유롭게 고른 글을 3분여동안 점자로 낭독했다.

이번 기념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 인천선관위,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제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 이하 인천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중구청장보궐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하여 다양한 투표편의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든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한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선관위 및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각장애유권자에게는 투표소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표당일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보조인력지원 및 휠체어 리프트차량 이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장애인유권자는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거콜센터 1390)에 연락하면 된다.

3. 웅진패스원 장학프로그램 통해 시각장애인 10명 공무원합격의 꿈 이뤄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공직진출대비반 장학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는 웅진패스원 공무원전문학원(gosi.passone.net)이 올해 총 10명의 시각장애인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했다.

웅진패스원은 지난 2007년부터 공무원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강의와 교재 제공은 물론 일대일 맞춤 학습, 진도를 관리, 멘토 시스템 도입,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지원이벤트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여명이 참여해오고 있으며, 2009년 시각장애인 최초로 김종성 씨가 국회 공무원으로 합격한 이래 매년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10명의 시각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7급 서울시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한 최수연 씨(시각장애 1급)는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본인이 노력하고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장애에 대한 편견에 구애 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웅진패스원 수험사업본부 구재경 팀장은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시각장애인연합회 장학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이 공직진출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해마다 공직진출대비반에서 합격자가 배출되는 성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후원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4. 충남경찰청, 장애인 맞춤형 치안정책 펼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이하 충남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치안시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6월 장애인 보호·치안 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의 생활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특히 같은 달에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이계를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노인·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노인·보호 치안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충남의 등록 장애인은 약 13만 명으로 전국 평균 5.61%보다 약간 높은 6.2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5만 2천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및 기초수급금 갈취 등의 범죄가 늘고 있으며,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부족 등 안전시설 미흡으로 장애인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경찰청은 장애인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 등 주요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져 있던 125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장애인 보행속도에 맞춰 연장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673개소 1,346개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수사절차에서 비장애인은 필요한 권리를 구두·서면으로 고지 받는데 반해, 시각장애인은 구두로만 고지 받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자로 작성된 『권리고지 및 범죄피해구제제도 안내』 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심한 시책 추진도 함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각 경찰서에서는 자체 직무교육 시간 등을 활용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 시각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며 앞으로도 지속·확대되어야 할 분야”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남경찰의 장애인 보호 치안활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5. 오비맥주, 시각장애인과 북한산 둘레길 동행

오비맥주(대표 장인수)가 지난 10월 25일 북한산 둘레길 우이령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체험과 자연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비맥주 임직원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시각장애인과 오비맥주 직원이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맨발걷기, 솔잎향 맡기, 나무안기 등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이령 입구에서 오봉전망대까지 돌아오는 등반행사를 마쳤다.

오비맥주 최수만 전무는 “평소 외부활동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을 도와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체험활동을 하니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지난 2008년부터 등반대회, 텐덤사이클 축제, 도자기 빚기, 산악 바이크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6. 미술로 마음 다듬으며 '힘'내세요!

인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경식 씨는 한 달에 두 번 설레는 발걸음으로 서울을 찾는다.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 김 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수강이다.

“첫 회부터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꽃꽂이와 점토 빚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사실 미술과 시각장애인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미술과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대표 엄정순)는 9월부터 격주 토요일에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술 강좌 '힘!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미술 체험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나아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심리치료를 통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향기의 힘 키우기(와인 시향), 입맛 키우기(음식 만들기), 손 힘 키우기(점토 빚기), 다리 힘 키우기(복춘 투어) 등 매회 교육 모두 '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힘'을 키우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강의는 예술심리치료전문가, 소믈리에, 요리연구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은 12월 넷째주 토요일까지 계속되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전화 02-733-199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는 1996년부터 초·중·고등부 미술수업을 진행해왔으며, 그동안의 교육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특화된 미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시급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11)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바라는 복지는 '소득보장'이 아닌 '의료보장'이었다. 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예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명시적 수준에 머물러있고,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전문의 부족·의료기관을 포함한 검진기구의 접근성 제약 등은 장애인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법률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국립암센터 박종혁 과장은 “현재 장애인의 건강보호, 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 보건연구사업 추진, 국립장애인 건강센터 설립, 장애인 보건관련 정부부처 신설 등을 담은 장애인 건강보호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선천적 장애의 경우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후천적 장애의 경우 장애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이지만 재활의료에 대한 법제적인 기반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재활병원, 재활센터 등을 명확히 규정, 평가, 지원하는 법제적인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건강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관리 체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유미숙 사무총장은 “신장장애인의 장애연금과 관련하여 1988년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또는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정책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박태성 부회장은 “각 지역별 보건소와 재활센터, 의료원의 연계통합이 구축되어야 실효적인 장애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장애인 건강권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건강권에 관한 부분도 통합시스템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

안마사의 학력 제한, 차별인가 필수인가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인 중학교 이상 학력 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력 요구는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관련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1월 2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학력제한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시작될 전망이다.

인권위와 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계기는 시각장애인 김모 씨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였으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11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현행 의료법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 첫째, 시각장애인은 학습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교육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둘째,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보기 힘들며, 마지막으로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마사 취득 요건 중 학력을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정한 것은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이료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라는 것, 또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상에서 시각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의 의료법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계 내부에서도 학력제한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 더 우세한 편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오히려 학력제한을 고등학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안마수련기관 수강생의 90% 이상이 고졸이상이며, 안마사 자격제도와 비슷한 시기에 마련된 간호조무사 자격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학력요건이 바뀌었다.

안마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요건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계 내부에서는 보다 전문화하여 이료과목을 대학 내에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8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에서는 '고등교육기관(대학)

내 이료 및 시각장애 재활관련학과 설치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토론자들은 대학 내 이료관련학과 설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학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

안마사는 인체해부학, 생리학, 경혈학 등 신체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전기치료와 침술치료 등 의사에 준하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력은 필수적이며,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학력제한을 고등학교졸업 이상으로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각장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중도시각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면 과거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시기에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안마사의 학력제한에 있어 시각장애인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 권위와 복지부의 의견 차이 역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마사의 학력제한의 유지, 상향 조정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마당

애널리스트의 하루-2012년 10월의 어느 날

신순규(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미국 투자금융회사 '브라운 브라더스 헤리먼' 근무)

오늘도 나는 6시 49분 Summit NJ발 뉴욕시행 통근기차를 기다리며,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다. 10월이라 그런지 온도가 좀 쌀쌀하다. 그런데 나는 이럴 때가 제일 좋다. 많이 춥지도 않고,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해주는 이 가을의 아침 날씨가.

어깨에 메고, 무릎에 올려놓은 한소네를 켜다. 미국에서 증권분석일을 하는 내가, 한국에서 만든 한소네를 굳이 쓰는 이유는, 다른 노트테이커(점자정보단말기-편집자 설명)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이메일은 물론이고,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볼 때도 한소네를 주로 이용한다.

의자에 앉은 채 나는 한소네를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이메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한다.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읽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내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총 여섯 개다. 데이지 포맷의 이 신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가지가지 생각, 그리고 여러 산업분야·회사·정부 기관 등에 관한 뉴스를 듣기(읽기) 시작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몇 개의 기사를 읽었을까,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흰지팡이를 펴들고, 의자에서 일어서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기차 쪽으로 걸어간다. 기차 2층에 올라가 빈자리에 앉고 티켓을 앞자리 등받이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신문을 듣는다. 기차에 앉아 있는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적어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는 다 훑어봐야한다. 이런 면에서, 나는 같은 기차를 탄 많은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들도 출근길에 신문을 보고 있다.

7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나는 뉴욕 타임즈를 끝내지 못한 채로 귀에서 이어폰을 뺀다.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 기차역이 자리 잡고 있는 뉴욕시 미드타운에서 월가로 내려가는 지하철 안에서 타임즈를 끝낼 수밖에.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은 서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플랫폼과 철도 사이를 막아주는 그 무엇도 없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팡이에 걸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혹 철도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자주 한다.

오늘도 나는 무사히 지하철을 타고 월가역까지 간다. 이래서 8시가 되기 몇 분전, 나는 우리 회사, 브라운 브라더스 헤리먼 빌딩으로 들어가 7층으로 올라간다. 애널리스트들보다 항상 일찍 출근하는 우리 팀의 트레이더들(트레이더: 증권사 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직원-편집자 설명)과 인사를 나눈다. 나는 아래층에서 배달받은 Bond Buyer, 채권분야의 사람들이 필수로 보는 전문신문을 그들에게 던져준다. 나는 인터넷으로 읽으면 되기 때문이다.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책상에 앉는다. JAWS 스크린리더와 Focus 점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을 읽고 Bloomberg 터미널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점검한다. Bond Buyer를 훑어보고 있을 때, 우리 팀 트레이더 중 한 명인 케이트가 나에게 음성 높여 말한다.

“SK, Morjan Stanley offering Royal Hospital 29's at 87.50, 10 million.”

그녀가 지금 나에게 말해준 것은, 모건 스탠리사가 로얄병원에서 발행한 2029년 만기 채권 천만 불 어치를 87달러 50센트에 판다는 내용이다. 웃음이 항상 맑은, 30살이 아직 안 된 것 같은 그녀는 일을 참 잘 하는 트레이더다. 어느 달러가 무슨 채권을 팔고 사는 지를 빨리 캐치해서 나와 동료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준다.

“I will look. Bid by what time?”

나는 이 채권을 발행한 병원을 분석하겠다고 하며, 몇 시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지를 그녀에게 묻는다. 케이트는 11시 반까지 결정해달라고 한다.

이때부터 나는 갑자기 바빠진다. 컴퓨터를 두들기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평가회사인 무디스사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의 웹사이트로 가서, 로얄병원의 리포트를 다운로드받는다. 또 Bloomberg 터미널에서 로얄병원의 재무보고서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내용은 과일들을 다운로드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재무모델을 엑셀에 로딩한 뒤 로얄병원의 스토리에 빠져들어 간다.

이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원하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 한 폴더에 저장하고,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다. 병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인지를 조사한다. 지역에서 얼마나 경쟁률이 높은 지 알아보고, 경쟁사 병원들은 어떤 기업들인 지도 분석한다. 다른 병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수술을 로얄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지도 알아보고 이윤은 얼마나 올리는 기업인지 계산한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고 시설을 보충하거나 확장해야하는 지도 점검한다. 또 인터넷 서핑을 하며 이 병원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재무부 사람들과 대화도 한다.

한 동안 이 병원의 스토리에 빠져 있던 나는 그 병원 재무를 모델하고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가 알아야할 점들을 정리해본다. 결국 케이트가 하고 싶은 트레이드(거래-편집자 설명)를 내가 허락하고 그녀는 이 채권을 천만 불 어치 산다. 간단히 말해서 이 병원은 자산이 아주 많고 이윤도 꽤 많이 올리는 병원이며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큰 병원이 하나 있지만 의술에서나 성장률에서나 로얄병원이 월등하다. 나는 새로 산 채권 때문에 기분이 좋다.

로얄병원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것을 to do list(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편집자 설명)에 올린 후 오늘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시작한다. 우리 팀에 1급 애널리스트를 한 명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보내온 이력서들을 읽는다. 열개가 넘는 이력서를 검토한 후, 나는 같이 일하고 있는 인사과 직원에게 이력서의 주인들 중 한 사람만이 초기인터뷰감이라고 이메일을 보낸다. 우리 팀의 빈자리 한개 때문에 벌써 인사과에서는 150개가 넘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받아보았고 나도 거의 40개의 이력서를 읽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겨우 3명만을 인터뷰했을 뿐이다. 실업률은 높은데 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걸까?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사와서 먹는다.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귀에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계속 끼고 있다. 아침부터 쏟아져 나온 뉴스 헤드라인을 듣고 있다. 외부 식당에 나가서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내 자리에서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흘러나온 뉴스를 검토할 때가 더 많다. 누가 그랬던가, 증권투자는 정보게임이라고, 새로운 소식에 빨리 반응해서 증권을 사고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즉석반응 트레이딩보다는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하는 투자 결정이 더 우수하다고 믿는다. 우리 회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들보다 더 우수한 분석으로 경쟁사보다 앞서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런 투자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만 벌써 14년이 넘게 일을 해 왔다.

오후 시간도 빨리 지나간다. 밀려있던 리포트를 쓴다. 투자 결정을 리포트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리포트 작성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편이다. 어느 전기공급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케이트가 나에게 또 소리 높여 말한다.

“SK, Morjan Stanley again offering Royal Hospital 29's at 88, 11 million more.”
오늘 아침에 산 똑같은 채권을 같은 딜러가 이번에는 88달러에 더 판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 아침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말하느냐고 케이트에게 묻는다. 케이트는 그걸 그녀가 어떻게 아느냐는 투로 말한다.

“왜, 우리가 아침에 쉽게 사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래?”라고 나는 빈정댄다. 케이트는 채권 트레이더답게 나에게 이렇게 쏘아댄다.

“Yes or no?”(살거야 말거야?)

“87.50 yes, 88 no!”(87달러 50센트면 사고 88달러면 됐어)

나도 간단히 이렇게 말해주고, 나의 리포트로 다시 신경을 돌린다. 5분 후, 케이트에게서 채팅 메시지가 온다. 87달러 50센트로 천백만 불 어치를 더 샀다고, 나는 타이핑을 계속 하면서 웃는다.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퇴근길에 오른다. 지하철로 뉴욕시 기차역까지 올라가고 6시 8분 뉴욕발 Summit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퇴근길에는 좋아하는 소설을 들으려고 하지만, 자주 그러는 것처럼 오늘도 기차에서 30분정도 꾸벅꾸벅 준다. Summit역이라는 방송에 깜짝 놀란 나는 급히 가방을 들어 메고 기차에서 내린다. 플랫폼 저쪽에서 아들 David의 목소리가 들린다. “Daddy, daddy.” 7살 난 아이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주 큰 목소리로 아빠를 외치며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나는 흰지팡이를 접는다. 아이는 틀림없이 나에게 뛰어오를 것이고 나는 아들을 안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도 27킬로가 넘는 아들을 안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나의 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여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0월 16일~10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0월 16일(화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한시련 서울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주제, 시각장애인과 함께 배리어프리영화 <광해> 상영회에 참석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sbs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자료를 발표한 의료장비 품질관리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연합뉴스 등에는 최고가약 처방 증가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7일(수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한시련 인천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뉴시스 등의 매체에 화장품 증정·비매품 모아 파는 서브스크립션커머스 편법영업과 관련하여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내용이 보도되었다.

18일(목요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 sbs 등에는 프로포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이, 연합뉴스 등에는 국자, 밥공기 등에서 발암물질 검출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9일(금요일)에는 국정감사 시찰대상으로 제약회사인 종근당 등을 방문했으며, 이어 한시련 대전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언론매체에는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질의 내용이 여러 건 보도되었는데, sbs 등에는 사후피임약 응급실 비치 관련 내용이, 에이블뉴스 등에는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20일(토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북한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주최했다.

21일(일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정책 특보로 임명되었으며, 이날 세계일보와 연합뉴스 등에는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22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최동익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안들이 다수의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는데, 매일경제 등에는 국민연금의 중소기업 투자 확대 필요에 관한 내용이, 웰페어뉴스 등에는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제안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었다.

23일(화요일)에는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했으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중앙일보 등에는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 내용이, 아시아경제 등에는 차상위계층 사회서비스 이용저조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24일(수요일)에는 민주당 기독교신우회 예배에 이어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최동익 의원이 제출한 자료 및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하여 국민일보 등에는 지역별 심각한 의료격차, 서울경제 등에는 장애인돌봄재활치료비 지역별 격차, 연합뉴스 등에는 지역별 의료인 격차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5일(목요일)에는 한시련 경북지부 총회를 주재하고 미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 특별보좌관 주디스 휴먼과 접견을 가졌다.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신문 등에는 부양의무제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 관련 내용이, 중앙일보 등에는 전업주부의 장애인연금 관련 이 보도되었다.

26일(금요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회를 주재했다.

29일(월요일)부터 31일(수요일)까지 미국 순회 초청 공연에 나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인솔했다.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8)

1) '핸드프린팅'의 순화어: 기념손찍기

핸드프린팅(handprinting)이란 동판 따위에 손 모양을 찍어 기념하는 일을 말한다. 요즘에는 동판 외에도 석고나 찰흙,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는데, 재료가 마르기 전에 손 모양을 찍고 이름과 날짜 등을 함께 기입하여 전시한다.

주로 어떤 행사에 연예인들이 초청되어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영화인들의 기념손찍기는 영화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개인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념손찍기를 하기도 한다. 아기의 손과 발을 기념손찍기해 조형물로 남겨 백일이나 돌 등을 기념하기도 하고, 연인이 손을 잡고 함께 기념손찍기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도 한다.

-예시

ㄱ. 공연장 개관 기념식에는 원로 가수들의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 행사와 축하 공연이 마련됐다.

ㄴ. 영화배우 이병헌, 안성기 씨는 아시아 배우 최초로 헐리우드 거리에 기념손찍기를 남겼다.

2) '타임캡슐'의 순화어: 기억상자

타임캡슐이란 중요한 기록이나 물건을 후세에 온전히 전할 목적으로 만든 용기를 뜻한다. 기억상자는 일반적으로 땅속에 묻어서 보관한다. 고대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양식이나 풍속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듯이 현대의 문화를 미래에 전할 목적으로 기억상자를 만든 것이다. 기억상자는 1938년 뉴욕 만국 박람회(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 가족, 친구, 연인끼리 기억상자를 만들기도 한다.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기억상자에도 변화가 있다.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보관해도 손상이 없도록 부식이나 열에 강한 기억상자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기억상자를 보관해주는 곳도 생겨났다. 기억상자는 한 시기나 특정한 자료를 담아 온전하게 전해 준다는 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역사적 증거물이자 정보 상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들도 현재를 역사로 남기기 위해 기억상자에 추억을 보관하는 일이 많다.

-예시

ㄱ. 1994년 서울 수도 600년을 기념해 서울시는 보신각종을 본뜬 기억상자(타임캡슐)를 만들고 서울을 상징하는 문물 600점을 담아, 400년 후인 2394년에 봉인을 뜯을 계획이다.

ㄴ. 두 친구는 서로에게 쓴 편지를 기억상자에 넣어 두고, 20년 뒤에 열어 보기로 약속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